
아라와
동물 친구들
밤일까?
글·그림 루미스타

등장인물 소개

주인공

아라



특징 밝고 동물을 사랑한다.

성격 호기심이 많고, 친구들에게 따뜻하고 상냥하다.

좋아하는 것 동물들과 놀기, 하늘 보기, 나비 그리기

꿈 숲속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모험을 하는 것!



♥ 아라와 함께 즐거운 이야기 속으로! ♥

등장인물 소개

또치

까칠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고슴도치!





겁이 나면
몸을 동그랗게 말아요.



낯선 사람에게는
조금 까칠해요.



친해지면 가시를 내리고
편안해해요.



맛있는 걸 먹으면
정말 행복해요!

품종	: 고슴도치
이름	: 또치
특징	: 까칠하지만 마음이 따뜻해요.
성격	: 겁이 많아 낯선 것에 경계하지만, 믿는 친구에게는 다정해요.
좋아하는 것	: 밤, 구운 밤, 가을 숲, 포근한 잠자리
꿈	: 맛있는 밤을 많이 찾아서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


가을이 되었어요.
나뭇잎은 하나둘 떨어지고,
밤나무에는 밤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아라는 밤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도 밤을 주우러 왔지요.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새초미도 아라를 따라왔어요.
아라와 새초미는 밤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밤을 줍고 있었어요.


그때 새초미가 아라를 불렀어요.
“아라야, 여기 와 봐! 여기 커다란 밤송이가 있어.
이거 까면 밤이 정말 많이 들어 있을 것 같아.”
아라가 달려가 보니 정말 커다란 밤송이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우와, 정말 크다!”
아라는 집게로 커다란 밤송이를
벌리려고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밤송이에서 작은 손이 집게를 잡으며,
뾰족한 얼굴을 내밀었어요.
“아야! 뭐야! 난 밤이 아니라고!”
아라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새초미도 화들짝 놀라
껑충 뛰어 저만치 달아났지요.


커다란 밤송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밤송이가 아니었어요.
얼굴이 불그레해진 고슴도치 한 마리가
아라를 흘겨보고 있었어요.
“야! 너 뭐야? 왜 나한테 집게를 들이댄 거야?
놀랐잖아!”
아라는 너무 미안했어요.
“미안해. 나는 네가 밤송이인 줄 알고
따보려고 했어.”


“나는 이래 봬도 이렇게 멋진 고슴도치인데,
어딜 봐서 내가 밤송이야?”
그때 멀리 뛰어갔던 새초미가 다시 아라에게
다가왔어요.
새초미는 아라 앞으로 바짝 나섰어요.
털을 곤두세우고 꼬리도 바짝 세운 채
고슴도치를 노려보았지요.
“누가 거기 누워 있으래!
정말 밤인 줄 알았잖아!”


그러자 고슴도치가 발끈했어요.
“그래서 지금 잘했다는 거야?
나는 정말 많이 놀랐다고!”
새초미의 귀가 살짝 접혔어요.
“그렇게 많이 놀랐어? 그럼 미안.”
아라도 얼른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고슴도치는 두 친구를 바라보았어요.
“뭐, 그 정도까지 사과하면……
그래. 받아줄게.”
화가 금세 풀렸어요.


아라는 이제 고슴도치가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너는 왜 밤나무 밑에 누워 있었어?
여기에는 밤송이도 많아서 따가웠을 텐데.”
고슴도치가 말했어요.
“여기는 내가 숨어 있기 딱 좋아.
밤송이가 나랑 비슷하잖아?
그리고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니.
여기 누워서 자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더니 신이 나서 웃었어요.
“감쪽같았지? 너희도 속았지?”

고슴도치는 자기가 한 말이 재미있는지
까르르 웃었어요.

새초미는 그런 고슴도치를 슬쩍 째려보았어요.
그러다 자기도 웃음이 나서,
“풉!”
하고 웃어 버렸어요.
아라도 까르르 웃었어요.

조금 전까지 티격태격하던 셋이
밤나무 아래에서 함께 한참을 웃었답니다.




고슴도치가 아라에게 물었어요.
“너, 밤 좋아하니?”
“응! 나 밤 참 좋아하거든.
그래서 너도 밤인 줄 알고 까먹으려고 했어. 미안.”
고슴도치가 말했어요.
“그럼 내가 알밤이 굵고 맛있는 곳을 알려줄까?
따라올래?”
아라는 새초미와 눈을 마주쳤어요.
둘은 씨익 웃으며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응, 좋아!”



아라와 새초미는 고슴도치를 따라갔어요.

고슴도치는 정말 크고 튼튼한 알밤이 많이 있는 곳으로
둘을 안내해 주었어요.

셋은 그곳에서 열심히 밤을 주웠어요.


밤을 한가득 주운 아라가 고슴도치에게 말했어요.
“너, 이거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는 거 알아?”
“구워 먹는다고?”
“응! 우리 집에 갈래?”
아라는 고슴도치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밤나무 숲
?


집에 도착한 아라는 엄마에게 부탁해서
주워 온 밤을 맛있게 구웠어요.
고슴도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운 밤을 먹어 보았어요.
“우와! 정말 달콤하고 딱딱하지도 않아.
너무 맛있어! 이런 맛은 또 처음이야. 너무 좋아!”
아라가 물었어요.
“또치야, 구운 밤 정말 맛있어?”
“응! 이런 건 정말 처음이야. 너무 맛있어!”


“또치야, 너도 구운 밤이 맛있으면 밤 많이 주워 와.
그러면 우리 집에서 또 구워 먹자.”
또치가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그래, 좋아! 다음에 내가 밤 많이 주워 올게!”
아라와 새초미와 또치는 함께 맛있는 구운 밤을 먹었어요.
그렇게 또치는 아라의 새로운 친구가 되었답니다.

